

2017 BGS Global Leadership Summit 참가 보고서

20140931 경영학부 이현지

1. 들어가며

Beta Gamma Sigma(이하 BGS)는 전 세계 AACSB인증 경영대학 상위 10%의 학생의 honor group으로, 72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Global Leadership Summit(이하 GLS)는 BGS 회원만이 참여할 수 있는 리더십 컨퍼런스로, 매년 11월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3회를 맞이하여 미국 올랜도의 Hilton Hotel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서강대학교 지부의 14기 회장으로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감사하게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2. 준비 과정

처음 참가를 결정하고 실제 컨퍼런스에 참석하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 기수 회장단에서 한 분이 먼저 참가를 결정한 상황에서 저까지 추가로 참가 의사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1명 분으로 결정되어 있던 예산 안에서 2명이 지원 받으려다 보니 신경 쓸 것이 많았습니다. 참가비 예산 또한 50만원에서 \$575로 증액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휴학생은 지원이 불가하다는 조건을 알게 되어 부득이하게 저 혼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참가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꼭 재학생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GLS 보통 활동이 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활발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매년 GLS에 참가한다고 들었습니다. 혼자 참가하게 된 저는 이것 저것 조언을 구하고자 이화여자대학교의 BGS에 연락을 해보았으나 이번 기수에는 아무도 참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다음 기수에 혼자 가시는 분이 있다면, 혹은 다른 학교의 참가 현황이 궁금하시다면 연락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포럼에 참석한 후에 알게 된 것이지만, 한국에서는 저희 서강대학교와 대전의 우송대학교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에서만 참여하였습니다.

참가 전 BGS 측에서 여러 메일을 받게 됩니다. 참가 신청, 결제, 비행기 할인, 스케줄, 페이스북 그룹 초대, 사전 테스트 등 여러 정보를 받게 되니 주의 깊게 메일함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Strength Test라고 나의 강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테스트 코드를 보내주는데, 많은 도움이 되며 포럼에서도 강조하니 빠뜨리지 않고 해 가시길 바랍니다.

3. GLS 일정

[DAY 1] 2017.11.2

행사 전날에 미리 도착하였던 저는 오후 2시쯤 호텔에 체크인을 했습니다. 컨퍼런스

장에 미리 가보니 BGS패키지를 나눠주었습니다. 행사 스케줄과 액티비티 자료들을 담고 있는 책자와 각종 대학원/기업 소개 팸플릿, 그리고 명찰이 들어 있었습니다. 둘째 날인 금요일 진행될 기업 및 대학원 리쿠르터들과 식사를 할 수 있는 네트워킹 식사 예약도 하였습니다. 오후 5시에 본격적으로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Pavillion에서 1시간 정도 저녁 식사를 하며 학생들과 처음으로 네트워킹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의 학교, 출신 지역, 전공 등을 공유하며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나눴습니다.



[사진1] 4일간의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던 Hilton Orlando Hotel

식사 후에는 메인 홀인 Sabal Ballrooms에서 행사 개최식이 있었습니다. BGS CEO인 Chris Carosella가 BGS라는 것에 대해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세계의 상위 10% 경영대학 학생들은 모은 BGS의 일원으로서 이 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뛰어난 학생이라는 연설을 들으며 자부심을 느끼고 감사했습니다.

개최식 이후에는 MBK Sports Management Group의 CEO인 Eugene Lee의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살아남은 방법, 매사에 포기하지 않는 정신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중 "Burn the ships"라는 말이 인상깊었는데, 돌아갈 배를 다 불태우는 정신으로 모든 일에 열정을 다하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이 말은 포럼 내내 다른 학생들과 계속해 이야기할 정도로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각 본부의 Student Officer들을 모아 짧게 세션을 가졌습니다. 각 본부의 훌륭한 제도들과 운영 방법들을 공유하여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단한 말을 전했습니다. 한 5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종료되었는데, 이 이후 실제로 Officer들이 모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이 딱히 없어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실제 운영 방법이나 고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사진2] 강연이 진행됐던 메인 홀과 명찰(Student Officer 태그가 붙어 있음)

[DAY2] 2017.11.3

둘째 날은 아침부터 리쿠르터와의 식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경영 전략에 관심 있는 저는 KPMG와의 식사를 예약하였고, 여러 학생들과 KPMG 인사팀과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KPMG는 주로 회계사를 리크루팅하고 있었으며, 70% 정도의 전략 프로젝트가 회계/재무 관련 프로젝트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점심과 저녁 시간에는 대학원 인사팀과 식사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대학원 응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대학원은 외국 학생을 위한 e-class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메일로 추가적 컨택을 해오기도 하였습니다.

식사 이후에는 "Lessons in Leadership"이라는 이름으로 Chicago Mercantile Exchange의 임원 Terrence A.Duffy의 짧은 동영상 시청하였습니다. 포럼 내내 이와 같이 5분 정도의 리더십 강의를 들었습니다. 다양한 기업에 소속되어 사회적으로 성공한 경영인들의 조언들을 들으며 태도와 열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From Here to There"라는 이름으로 커리어 목표 설정에 대한 Alyssa Preston의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찾고, 열정을 가지고 커리어를 만들어나가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인생에 있어 정말 중요한 질문들을 던졌고, 답을 찾아나가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안내까지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익했습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전지에 그림으로 그리고 같은 테이블 팀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의 솔직한 인생관과 커리어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가장 기억에 남는 세션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팀 트레이닝, 윤리적 리더십, 바디랭귀지 기법, 면접에서의 적절한 행동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강연을 들었습니다. 퀴즈, 토론, 개인 과제, 질의응답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적절한 행동 양식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비즈니스 리더가 가져야 할

다양한 소양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사진3] 숙소를 함께 쓰며 친해진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

[DAY 3] 2017.11.4

셋째 날 오전에는 리더십 강의들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GLS 행사를 돕고 있는 BGS Mentor들의 세션이 있었습니다. BGS 학생 리더로서 지난 GLS에 참여했던 학생들 중 선정하여 스텝처럼 행사를 기획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 이야기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대학원 리쿠르터 패널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When, Why, Where, How"를 주제로 대학원 진학에 대한 구체적 방법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대학원 진학에 적극적인 미국 경영대학의 문화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점심 이후에는 대망의 Case Competition이 시작되었습니다. 350여명 학생들이 5개 케이스에 7개 팀이 경쟁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저는 Case 5의 purple 팀으로 참가하였으며, 제 팀은 9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저희 케이스 주제는 "미래의 대학을 상상하라"였습니다. 주요 기술들과 가이드라인이 담긴 케이스 자료를 팀 별로 1부씩 배부 받아 참고하였습니다. VR, IOT, Block Chain 등 최근 주요한 기술적 이슈들이 대학의 모습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 토론하고 PPT를 구성하였습니다. 약 5시간을 소요하여 프로젝트를 완성하였습니다. 영어로 적극적으로 토론하며, 똑똑한 팀원 친구들로부터 잘 모르던 부분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사진4] 4일간 식사를 했던 Pavillion과 (좌) 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학생들 (우)

[DAY 4] 2017.11.5

마지막 날에는 아침 식사 후 개별 팀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3명의 팀원이 먼저 공항으로 떠나고 남아 있는 6명의 팀원이 모두 나눠 발표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 또한 주로 담당했던 Platform 부분의 발표를 맡아 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최종에 진출하지는 못하였지만, 케이스 별 우수 팀들의 발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발표하는 다른 팀들을 보며 더욱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발표 종료 후에는 간단한 폐막 인사를 끝으로 포럼이 종료 되었습니다. 친해진 친구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진5] 기념사진 촬영



[사진6] BGS Board member로 케이스 평가에 참여하신 김주영 교수님과 기념사진

구체적인 일정과 연사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etagammasigma.org/events/gls/schedule>

4. 나가며

4일의 revolutionary learning experience가 폭풍처럼 지나갔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강연을 듣고 적극적으로 팀 프로젝트에까지 참여해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학생들이 많았지만, 그 외 다른 지역에서 온 학생들까지 만나며 글로벌 경영대학에 대해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강의를 듣고 개인적으로 얻어가는 다른 포럼과 달리 토론과 네트워킹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여러 학생들과 달리 더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게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문화 또한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에 몇 안되는 한국인으로, 그리고 서강대학교 대표로 참가할 수 있어 매우 감사하였습니다.